

IT/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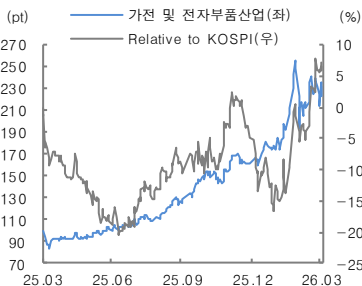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A j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0.5	81.4	128.5	287.2
상대수익률	24.6	53.6	66.2	147.6



AI 서버항 비중이 높은 기업에 주목

- 대형 IT 기업 1Q 실적이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시장 반등을 견인
- 중동 리스크 완화(휴전), 유가 안정·원화 강세로 대외 불확실성 축소
- AI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및 가격 인상 영향으로 IT 업종 이익 모멘텀 확대

반도체 다음으로 전기전자 업종 대형 IT 기업의 실적도 컨센서스 상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주간 휴전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은 모습이다. 유가 상승의 둔화, 환율(원화)도 하락(원화강세) 진행되면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전 대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2026년 1Q 영업이익이 57조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을 상회, 2Q 및 2026년 실적 전망의 상황,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강화되었다.

삼성전자의 실적 상황이 시장의 반등을 견인하였다. SK하이닉스의 2026년 1Q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세였다. 또한 LG전자 및 LG이노텍의 1Q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주저하였던 대형 IT기업의 2026년 1Q 영업이익의 호조가 예상을 상회한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익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 AI서버 및 데이터센터항 메모리, 수동부품의 수요가 강한 가운데 가격인상이 추가되면서 풀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IT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LG전자 : 1Q 영업이익은 추정과 컨센서스를 상회, 호실적 평가

LG전자의 2026년 1Q 영업이익은 1,67조원(32.9% yoy/흑전 qoq)으로 종전 추정(1.61조원), 컨센서스(1.38조원)을 각각 3.7%, 21%씩 상회, 예상 상회한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매출은 23,73조원(4.4% yoy/-0.5% qoq)으로 컨센서스(23.3조원)을 소폭 상회하였다. 별도 기준의 LG전자만의 영업이익 추정은 1,38조원으로 22.1%(yoy) 증가 등 대외적인 불확실한 환경에 선제적인 대응, 비용의 최소화 노력의 결과로 예상을 상회하였다.

2026년 1Q에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였던 MS(TV 등) 부문의 영업이익이 흑자전환(yoy/qoq), 영업이익률 확대(7.8%)로 전체 수익성을 견인하였다. 2025년 인력효율화(희망퇴직 등) 진행, 저수익 제품의 축소로 고정비용이 감소하였다. 2026년 1Q에 동계올림픽 개최로 프리미엄 TV(OLED TV) 판매 증가, 국내에서 프리미엄 노트북에서 판매 인상, 추가적인 이익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HS 부문은 프리미엄 매출 확대 및 VS 부문은 수익성 중심의 수주 확보가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였다. 다만 ES 부문은 중동전쟁으로 일시적인 물류비용의 증가, 수요 둔화로 기존 추정대비 하회한 것으로 추정한다. 연결대상 LG이노텍의 실적 호조로 추가적인 이익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시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시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박강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이견	기업 투자이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0.4%	9.6%	0.0%

(기준일자: 20260406)